

3년 47억원... 최형우, 내년에도 타이거즈맨

2017년 삼성서 이적해 타율 0.342·120타점... 그해 V11 이워 4시즌 꾸준한 성적 귀감... 내년 터커-최형우-나지완 중심 타선 완성

‘타격왕’ 최형우가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3년 더 땀을 흘린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3년, 총 47억원(계약금 1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7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7년 KBO리그 첫 ‘100억 사나이’로 KIA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의 두 번째 FA다. 최형우는 2002년 전주고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단한 뒤 첫해 4경기 출장, 2004년 2경기 출장을 끝으로 방출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에서 칼을 갈았던 최형우는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구준함’의 대명사로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우뚝 선 최형우는 2017년 KBO리그 100억원 시대를 열며, 고향팀 KIA에 입성했다. KIA에서 첫 시즌이었던 2017년 최형우는 0.342의 타율과 함께 26홈런 120타점을 만들었다.

최형우를 중심으로 쉬어갈 틈 없는 타선이 구축되면서 KIA 팬들은 환호했고, 이 해 가을 타이

거즈는 V11를 이뤘다. 지난 4시즌 동안 최형우는 561경기에 출전, 타율 0.335, 677안타 96홈런 424타점을 기록하며 FA의 모범이 됐다.

특히 올 시즌에는 140경기에 출전, 타율 0.354, 28홈런 185안타 115타점 93득점이라는 성적표를 내며 ‘타격왕’에도 등극했다.

베테랑의 저력을 발휘한 최형우는 4년간의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을 바탕으로 두 번째 FA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대로 고향 팀에서 남은 야구 인생을 보내게 됐다.

최형우는 “구단의 배려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나이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이 중요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참으로써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동료들과 함께 최고의 팀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다시 한번 우승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



지난 10월 25일 KIA-삼성전, 2회말 1점 홈런 뒤 최형우가 동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은 성적으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면서 내년 시즌에도 터커-최형우-나지완을 중심으로 타선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 KIA는 터커에 이어 최형우와의 계약에 성공하

‘9경기 9골’ 금호고 엄지성 K리그 주니어 B권역 MVP

프로축구 광주FC U18 금호고의 엄지성이 올 시즌 가장 빛난 K리그 주니어가 됐다.

엄지성(3년)은 ‘2020 K리그 주니어 U-18 B권역’ 개인상 시상에서 최우수선수 상을 받았다.



K리그 22개 구단의 유스팀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13일 시작돼 A, B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경기수가 줄었지만 치열한 승부 끝에 11월 3일 우승팀이 결정됐다.

금호고는 6승 3무 1패(승점 21점)로 2위 전북 현대 U-18 전주영생고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이뤄진 개인상 시상에서도 금호고가 돋보였다. 9경기에서 9골을 넣은 엄지성은 득점왕과 함께 B권역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김홍은과 신승훈은 각각 수비상과 골키퍼상을 받았다.

우승을 이끈 최수용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 감독 부문 수상자가 됐고, 최우수지도자 코치상은 신상훈 코치에게 돌아갔다. 전남대래곤즈 U18 광양제철고는 페어플레이팀의 영광을 안았다. FC서울 U18 오산고의 우승으로 끝난 A권역에서는 이태석이 최우수선수로 등극했다.

오산고를 지휘한 차두리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 골만 더하면... 손·케, EPL 역대급 ‘짝’

토트넘-첼시전서 시즌 12골 합작...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 눈앞 통산 32골 합작 ‘올 타임 베스트’ 역대 2위... 4골 더하면 전설 등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로 떠오르는 손흥민(28)과 해리 케인(27)이 EPL 새 역사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2015년부터 6시즌째 호흡을 맞춰온 두 선수는 올 시즌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듯 완벽한 콤비 플레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 골 욕심은 자제하고, 서로에게 득점 기회가 생기면 고인 없이 곧바로 양질의 패스를 건네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유럽 축구 최고 무대를 폭격하고 있다.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끝난 크리스털 팰리스(이하 C.팰리스)와의 2020-2021시즌 EPL 12라운드에서도 ‘손-케인 듀오’의 파괴력은 빛났다.

0-0으로 팽팽하던 전반 23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약 30m 거리에서 기습적인 왼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상대 허를 찌른 케인의 판단력이 가장 빛난 골 장면이었다. 앞서 패스한 뒤 골문을 향해 움직여 케인이 슈팅할 기회를 열어준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도 득점을 거들었다.

손흥민과 케인이 올 시즌 EPL에서 주머니 받거나 합작한 12번째 골이었다. 이들은 토트넘이

리그에서 올린 총 24득점 중 절반을 책임졌다. 이제 한 골만 더하면 EPL 역대 단일 시즌 두 선수 최다 합작 골 타이 기록을 쓴다.

EPL에서 단일 시즌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듀오는 무려 25년 전 1994-1995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넣은 앨런 시어러-크리스 서턴이다.

손흥민과 케인은 시즌 일정을 절반도 채 소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들이 만든 대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이 올 시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은 하나 더 있다.

이날 C.팰리스전까지 EPL에서 통산 32골을 합작한 손-케인 듀오는 이 부문 역대 2위에 자리해 있다.

이 부문 최다 기록은 프랭크 램퍼드-디디에 드로그바(첼시)의 36골이다.

이미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은 손흥민과 케인이, EPL ‘올 타임 베스트’ 듀오로 공인받기까지 불과 4골만을 남겨둔 셈이다.

C.팰리스전(1-1 무승부) 골로 토트넘(승점 25·골 득실 +14)을 선두 수성으로 이끈 손흥민과 케인은 2위 리버풀(승점 25·골 득실 +9)과의 17일 13라운드 원정 ‘빅 매치’에서 또 한 골 합작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오른쪽)이 지난 10월 5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7분 득점한 뒤 해리 케인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민 14골 16어시스트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리그 2승

광주도시공사가 혼자 14골, 6어시스트로 맹활약한 강경민을 앞세워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2승째를 따냈다.

광주도시공사는 14일 충북 청주 올림피아콘서트홀에서 열린 여자부 1라운드 인천시청과 경기에서 31-17로 완승했다.

최근 2연승을 거둔 광주도시공사는 2승 1무 2패로 중상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초반 4-2에서 연달아 6골을 몰아치며 10-2를 만들어 기선을 잡았고, 전반을 16-4로 마쳐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전반에만 10골을 터뜨린 강경민은 14골, 6어시스트로 팀 승리를 주도했다. 골키퍼 우하림도 방어율 54.3%(19/35)로 선방했다.

인천시청은 개막 후 5연패 늪에 빠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장성우 2년 연속 천하장사 꽃가마

장성우(23·영암군민속씨름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래판의 최강자’로 등극했다.

장성우는 13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0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천하장사(14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고교생 최성민(18·태안고)을 3-2로 꺾었다.

실업 무대 데뷔 첫해인 지난해 생애 처음 천하장사에 올랐던 그는 천하장사 2연패를 달성했다.

올해는 1월 설날 대회와 지난해 평창 대회에서 백두급(140kg 이하) 우승을 차지하는 등 3관왕을 기록했고, 데뷔 2년 만에 백두장사 4회를 포함해 통산 6차례의 꽃가마를 탔다.

장성우는 이날 16강부터 4강까지 상대에게 단 한 판도 내주지 않은 채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베테랑’ 윤성민(영암군민속씨름단)과 장성복(양평군청)을 꺾은 고등학생 최성민이었다. 최성민은 10월 회장기 대회에서 장사급(140kg 이하) 정상에 오른 ‘고등부 강자’다.

고등학생이 천하장사 대회 결승에 진출한 건 1993년 백승일이 17세 나이로 천하장사에 오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7년 만의 고교생 천하장사에 도전한 최성민은 승리는 놓쳤으나 ‘씨름의 차세대 주자’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KBO, 키움 갑질 처벌해달라”

프로야구선수협 이어 은퇴선수협도 성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이어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도 키움 히어로즈의 ‘갑질’에 대한 KBO 징계를 요구했다.

한은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불거진 키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지시와 불법으로 팬을 사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되는 논란에도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프로야구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키움에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키움은 지난 6월 허민 이사회의장의 ‘야구 놀이’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허민 의장이 퓨처스리그에서 2군 선수를 상대로 투구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접화됐다.

허민 의장이 소속 선수를 상대로 캐치볼과 배팅 연습 등을 지시하며 ‘갑질’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투구 영상을 촬영한 팬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구인들과 야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올 시즌 키움에서 방출된 이택근은 “구단이

CCTV로 팬을 사찰하고, 해당 팬을 조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KBO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키움도 입장문을 내고 “보안 점검 차원에서 CCTV를 확인했고, 팬에 대한 내용은 감지한 단장이 개인적인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본 정도”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1일 선수협이 입장문을 내고 KBO의 징계를 요구했고, 한은회도 목소리를 냈다.

한은회는 “키움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소속 선수들에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수차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을 행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한국프로야구 존재의 이유인 프로야구팬을 감시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프로야구 선배로서 이미 입장을 밝힌 선수협의 의견에 깊이 통감을 하며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키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KBO에 요청드린다”며 KBO의 대처를 촉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